

文·安 불붙은 ‘호남 쟁탈전’



‘광주 국민 승리 유세’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이 이깁니다, 광주 국민 승리 유세’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철수 광주서 첫 유세 “호남소외 해소 최우선 과제” 문재인 오늘 광주로 ‘한전공과대’ 설립 등 공약 주목 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도 광주전남 선대위 출정식

‘선택 2017’ 대선 D-21

‘5·9 참미 대선’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이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본격적인 ‘호남 쟁탈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3·4·5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과 이틀째인 17~18일 하루 사이로 광주를 찾아 총력 유세를 펼치고, 각 당은 중앙 선대위 등을 대거 호남에 투입해 선거전 초반부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아래의 뒷발인 호남에서 선거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야만 대선 당선뿐만 아니라 야권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초반부터 당내 화력을 총동원한 불꽃 유세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인 17일 당내 최대 기반인 광주를 찾아 중소기업인, 상인, 젊은층 등을 집중 공략했다.
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호남을 찾은 이유에 대해 “호남은 제가 처음 정치를 할 때 저를 불러주신 곳”이라며 “그리고 제가 광안에 나왔을 때 제 손을 잡아주신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차별을 강조한 게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격차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호남소외 해소와 탕평에 주안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광주를 먼저 찾은 안철수 후보는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 찾아 지역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자신의 미래비전을 소개했다.
이후에는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

을 상대로 바다 민심을 훑고,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금남로에서 시민을 상대로 유세전을 펼쳤다. 유세전에는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참석해 힘을 보탤었다. 안 후보는 이어 충장로 일대를 돌며 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젊은층을 공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18일 대전과 대구에서 유세를 벌인다.
국민의당도 이날 당 대표인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과 주승용·박주선·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권은희·김동철·최경환·윤영일·정인화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최도자 의원, 문병호 최고위원 등이 대거 광주로 출동해 지원유세를 벌이며 총력전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지원유세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예산과 인사 차별이 없다”면서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17일 대구를 먼저 찾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지역 추가 공약을 발표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한전공과대’ 설립 등 ‘메가톤급’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

된다.
문 후보는 18일 오후 5시30분 금남로에서 첫 광주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한전공과대 등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추가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송영길 총괄본부장, 강기정 총괄수석본부장 등 중앙 선대위원회 관계자들을 대거 광주에 투입해 총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지원유세에서 “한전에 미국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유치해서 13조원이 넘는 한전의 이익금이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에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지 공약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후 3시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광주시장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대대적인 유세전에 돌입했고,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도 이날 오후 2시 광주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갔다. 정의당 광주·전남 공동선대위도 이날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공동선대위 출정식을 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오늘 선내 진입 시도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18일 본격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98일만, 목포 신항 철재부두 육상으로 완전히 거처된 지 1주일 만이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선체 정리업체 코리아샬베지 등은 17일 수색자들의 이동에 필요한 난간 설치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날 목포 신항에 비가 내리면서 일부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작업자들은 전남 선수와 선미 쪽에 한 대씩 26m 높이 계단형 구조물인 워킹타워를 설치했다. 앞으로 선체 우현 쪽으로 진입해 용접 등 전기작업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탓에 고공에서 작업자들이 미끄러지거나 전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작업이 여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선체 세척 과정에서 떨어진 잔존물을 청소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절단할 부위를 점검했다.
코리아샬베지는 선체조사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좌현에 구멍을 뚫어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공 부위는 애초 3곳으로 알려졌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절단면 크기는 70cm~1m20센티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선체 안전도와 위해도 검사도 계속된다.
앞으로 수색작업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는 진입 전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도 침몰해역에 유실 방지를 위해 설치된 철제 펜스 안 수중수색도 병행했다. 그동안 40개로 나뉜 구역 중 7곳 수색을 마치고 8번째 구역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유류품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선체에서는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 37점, 유류품 108점이 나왔다.
해수부, 선체조사위, 미수습자 가족 등은 수습방안과 관련한 최종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관계자들도 이날 처음 목포 신항을 찾아 선체조사위 등과 활동 내용 등을 논의하고 21일 투입을 결정했다. 해수부 등은 18일 오전으로 예정된 수색계획 발표 직후 천공과 함께 선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검찰, 박근혜 ‘592억원 뇌물’ 기소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2면>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 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지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

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술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성문록 사건’ 檢·警 수사 갈등 ▶6면
- 新湖南誌-삼천육각과 시나위 ▶18면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전명대 ▶20면

HNT 하나투어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6월 3일(토)~8월 14일(월) | 3박5일
비엠펙항공(VJ항공) : 19항차 운영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p>하나Pack 캐주얼 AVPF11_VJ2 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p> <p>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 하롱파크 (\$50상당) ☑ 특식 : 3회(오살불고기/라비엣 레스토랑/노니보섬 정식) 🕒 쇼핑 : 4회</p>	<p>하나골프 AVGF10 [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p> <p>총 상품가격 1,0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p>☑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 특식 : 2회(오살불고기/센 레스토랑 뷔페식) 🕒 쇼핑 : 3회</p>
--	--

무안출발 하노이 전세계 공통 혜택

- 무제한 생수 제공
- \$50 상당 비경투어 패키지, 골프(AVGF10)상품 한정
- 푸드팩 제공 (단독여행상품 제외)

* 푸드팩(밤, 누룽지, 감, 스낵류)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여행상품용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품] 상품에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존/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당일 *여행 차량 *참수 권고 *여행 금지